

도,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확대

이명자 전북하나센터장 등 지역협의회 제2기 위원 위촉식... 내달 24일 통일화합 한마음 축제 개최

도내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23일 전북도청 4층 회의실에서 '전북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위원장 김일재 행정부지사) 제2기 위원들의 위촉식을 가졌다.

전북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14년 4월30일 제정돼 15명이 1기 지역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년 임기인 이번 2기 위원은 이명자 전북하나센터장과 군산시 성광문 협의회장, 남원시 김성수 협의회장, 이북도 이경수 소장, 전주사랑교회 이

규 목사, 이도영 전북도의원, 우석대 이성희 교수 등이 참여한다.

현재 도내 북한이탈주민 수는 515명(지난 12월 기준)이며, 2015년에 비하면 올해에도 북한이탈주민의 전북도 정착인원은 비슷하며 학생 수만 약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도는 이들을 위해 하반기 주요 북한이탈주민지원 사업으로 내달 24일 북한이탈주민 100명과 내국인 100명 등 총 200여명이 참여하는 통일화합 한마음 축제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북한이탈 주민들이 직접 만든 북한음식 시연과 이를 지

원하는 기관들이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지역민의 관심을 유도키로 했다.

북 이탈주민의 자녀들을 위한 책임기 방법과 습관을 배우는 특별행사도 진행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날로 증가하나 이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상황여서 도는 2기 위촉식 및 향후 행사추진을 통해 지역민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지원역량을 결집·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지역 내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협의회 위원장인 김일재 행정부지사

는 "각 기관·단체별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과 사업들을 더욱 확대하여 전북도민으로 신속하고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로 북한이탈주민의 취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적응프로그램의 운영 사항, 민관협력 방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 자문하게 된다. /고민형 기자

농작물 폭염피해 신청해주세요

29일까지 읍면동에... 도, 대파대·생계비 등 지원

전북도와 농식품부는 지난 8일부터 시작된 폭염으로 입은 농작물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작물과 재배규모에 관계없이 피해를 입은 농가는 해당 읍면동에 신청하면 공무원, 이장 등과 합동 정밀조사를 거쳐 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22일 전국 처음으로 폭염피해를 시군으로부터 파악한 결과 정읍과 남원 무주 등 6개 시군에서 348ha가 생육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군별로는 무주에서 사과 홀로 품종이 폭염으로 200ha가 발생하였고, 김제에서는 11.8ha의 인삼이 고온으로 줄기와 잎이 고사했다.

도는 피해 농가는 피해상황에 따라 대파대, 농약대와 함께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번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 경영안정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폭염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경우 오는 29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민형 기자

도,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7곳 지정서 전달

전북도가 2016년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7개 기업에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다양한 유형의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였으며, 지역의 인·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지정서를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대표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줄 것과 함께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해 담당관 지역사회 리더로서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2016년 제4차(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공모를 9월 중에 추진할 계획이다. /고민형 기자



을지훈련 이틀째... 을지훈련 이틀째인 23일 오전 전북도청 총무상황실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김경수 35사단장을 비롯한 민관군 훈련단이 오전 상황보고와 전시현안과제 토의 및 가상상황 도상 연습훈련을 하고 있다.

전북지역 평균 저수량 51.5% 기록

일부 하천 밀바닥 드러내... 폭염·마른장마 원인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장마 기간에 비가 오지 않는 '마른 장마'가 이어지고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북 지역의 저수량이 크게 줄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씨에 장기간 폭염까지 지속되면서 일부 하천은 밀바닥을 드러내 가을 영농에 차질이 우려된다.

23일 전북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북지역 평균 저수량은 51.5%를 기록 중이다. 이는 평년 저수량 73.0%에 크게 밑도는 수치다.

전북지역 평균 저수량은 지난달 80.9%로 정점을 찍었다가 이후 마른 장마에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한 달 사이 30%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기간 이어진 폭염으로 도내 일부 하천도 가이 밀바닥을 드러냈다. 실제 전주 조촌천은 물이 모두 메말라 풀숲만 무성했고 삼천천 상류도 수위가 크게 낮아져 하천변 모래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도로변 가로수들도 폭염을 견디다

못해 고사위기에 처했다. 이날 전북 혁신도시 주변과 전주 덕진동 인근 가로수들은 장기간 지속된 폭염에 잎이 메말라 누렇게 변해 있었다.

전주와 완주, 부안 등 각 지자체들은 가로수의 고사를 막기 위해 물주머니를 설치하는 등 비상 관수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폭염이 물러나지 않는 이상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북도는 폭염과 마른 장마 등으로 인한 저수를 하락을 인지하면서도 영농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농 농사에 필요한 농업용수의 급수가 9월이면 마무리되기 때문에 영농피해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논은 현재 저수량으로도 영농과 수확에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폭염으로 일부 밭작물의 피해가 우려돼 앞으로 도 비가 내리지 않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경우 가뭄피해 대책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뉴스

전통문화 융·복합 상품 상용화 지원 사업

내달~12월까지 전통문화창조센터 접수... 10건~25건 시제품 선정 지원 계획

한국전통문화재단이 잊혀져가는 전통문화상품 상용화 방안을 통해 사업화의 길을 열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에 나선다.

한국전통문화재단 전통문화창조센터는 전통문화와 현대적 스타일이 융·복합된 상품들의 시장 진출과 사업화 지원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2016 전통문화 융·복합 상품 상용화 지원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통문화상품이 일상생활과 괴리돼 점차 사라져가는 추세에서, 시장성 있고 관련 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존 개발된 상품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분야는 전통문화 기술과 소재 등이 활용된 상품, 전통문화와 현대적 기술이 융·복합된 개발 상품 등이며 참가자들은 기존 개발된 시제품을 지원하면 된다.

전담은 지원된 응모자 중 최소 10건

에서 최대 25건의 시제품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전통문화상품과 전통문화 융·복합 개발 상품을 보유한 사업자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선정자들에게는 리뉴얼 개발비로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되며 ▲브랜드 개발 ▲기업 컨설팅 및 홍보·마케팅 전문가 멘토링 ▲지적재산권 등록 ▲국내외 박람회 전시 출품 ▲상품 양산화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접수는 내달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매월 첫째 주에 소정양식의 신청서와 개발 포트폴리오를 한국전통문화창조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며 기간 내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통문화재단 누리집(www.ktcc.or.kr)을 참조하거나 전통문화창조센터(063-281-1570)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철 한국전통문화재단 원장은 "다양한 전통문화상품들이 보다 실용적이고 시장성 있는 상품으로 리뉴얼 될 수 있는 기회"라며 "현대인의 생활에 성공적으로 녹아들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대중적인 문화상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폭염' 여파... 단축수업 학교 잇따라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정상수업을 못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다.

23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무더위로 인해 단축수업을 하는 학교들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이날 수업 시간을 줄인 학교는 전주 우전중과 성심여중 등 총 6개

학교이며, 오는 26일까지 단축수업을 예고한 학교도 있다.

또 이리북중의 경우 오는 31일까지 단축수업을 할 예정이다.

앞서 남원 금지중과 용성중 등 학교는 당초 예정돼 있던 개학일(8월 17~18일)을 늦춰 22일 이후로 연기하기도 했다. /뉴스

제10회 전국장애인가요제 안내

장애인의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분야 참여 확대를 위하여 매년 장애인 가요제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 ① 참가자 신청 : 등록 장애인 누구나 (16세이상)
- ② 신청방법 : 대중가요 1곡 선정하여 전화, 방문 팩스로 신청가능 (8월 31일까지)
- ③ 참고 : 도민누구나 관람가능. 행운권 추첨하여 상품 증정함

- * 일시 : 2016년 9월 3일 (토) 오후 4시 30분
- * 장소 : 전주 풍남문 문화광장 (남부시장 입구)
- * 주최 : 전북장애인 복지문제연구소
- * 후원 : 전라북도, 한국연예인협회 전북지부, 전북장애인 신문사



대회본부장: 김양욱



MC: 최현아(가수 겸 MC)

전북 장애인 복지문제 연구소

T. 286-6678 F. 287-6678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